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주간충현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권회 사서지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진

결산의 달 12월을 앞두고
주님 손 의지하는 아름다운 정돈의 시간

11월 마지막 주일이다. 1998년 한 해도 이제 12월 한달 만을 앞두고 되었다. 각 위원회와 교회학교, 찬양대, 남녀전도부 등에서는 총회와 신앙공회 임명 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성탄절을 전후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자칫 차분한 정돈없이 훌쩍 새해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더욱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교회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아름다운 정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또한 교회와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12월 한달 간 교회에서 진행될 연말 주요 행사일정은 아래와 같다.

교구모임 장소 변경
12월 첫주일부터 바뀐 장소에서

12월 첫주일부터 교구모임 장소가 아래와 같이 바뀐다.

- 1교구 나사렛골
- 2교구 복지관 지하 2층
- 3교구 교육관 205호
- 4교구 본당 지하 임마누엘홀
- 5교구 교육관 407호
- 6교구 본당 지하 호산나홀
- 7교구 복지관 지하 1층
- 8교구 교육관 107호
- 9교구 교육관 414호
- 10교구 교육관 201호
- 11교구 교육관 307호
- 12교구 교육관 312호
- 13교구 베나나홀
- 14교구 교육관 301호
- 15교구 교육관 212호
- 16교구 선교관 영아부실
- 17교구 본당 지하 아벨홀

크로스웨이, 교사양성부와 찬양대원양성부 등을 포함하여 총 610명이 등록하여 진행될 금번 학기 공부의 수료생은 총 414명(등록자의 68%)이며 개근자는 116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경연구원은 내년 불화가 강의를부터는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여 진행시키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더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여 '날마다 말씀'을 삼고하여 행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른 모든 부서들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있어서 12월은 만 가지 교차하는 시간이다. 일년 동안 정들었던 제자들을 전입시키기 위해 차근차근 뒷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일년생활을 행정적으로 정리하면서 느끼게 되는 제자들에게 대한 아쉬움과 미안할 듯한 마음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 또한 떠나가는 교사와 새로 들어오는 교사들의 분주한 이動으로 마음은 어수선했다. 성도들은 기도시간마다 누가 알아주는 그렇지 않은 목목히 자리를 지켜온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힘내어 소중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빼놓지 말아야 하겠다.

주간성경공부
12월 10일까지 순차적 증가

지난 9월 초부터 진행되어온 주간성경공부가 각 반의 진행상황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성경별 공부반과

연말 주요 행사 일정		
날 짜	행 사	시 간
11월 중	각 위원회 총회, 남녀전도회 총회	자체 개별진행
12월 3일(목)	대정위원회, 기획위원회 공동 예산 심의	18:00
12월 6일(주)	99년도 예산안 위원회의의 상정	
12월 9일(수)	경기당회, 99년도 포럼 결정, 99년도 예산 심의 은비 및 근속자 포상 대상자 선정	
12월 13일(주일)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 교회학교 교사 임명 찬양대원 임명(2부, 4부) 헌금위원, 안내위원 임명(2부, 4부) 교구 총회	4부예배시 각 예배시 각 예배시 찬양대배 후
12월 20일(주일)	찬양대원 임명(1부, 3부, 5부) 남녀전도부 총회(일역일 모임) 헌금위원, 안내위원 임명(1부, 3부, 5부) 각 위원회 실행위원 임명	각 예배시 주간총회에 병행 개최
12월 25일(금)	성탄절예배 성탄절 연말 찬양대배(메시아)	09:00, 11:00 19:00
12월 26일(토)	교사 총회	18:00
12월 27일(주일)	특별제직회의(예산결산보고) 은비 및 근속자 포상 공동회의 소집공고	찬양대배 후 찬양대배시 주간총회에 공고
1월 1일(금)	새벽기도회 신년예배 금요찬양집회 생략	05:00 09:00, 11:00
1월 3일(주일)	공동회의 성찬예식	찬양대배 후 각 예배시

군전도회
진중세례식 활발

군전도회는 지난 11월 21일(토) 제25사단에서 536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중세례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제 28일(토)에는 해병대에 방문하여 700여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15사단에서 진중세례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계속되는 세례식을 통하여 많은 장병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조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제대후에도 주님을 섬기는 근신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관계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힘써야 하겠다.

할렐루야오케스트라
선교찬양을 위한 음악회
12월 5일 갈릴릴

오는 12월 5일(토) 저녁 7시 30분에 갈릴릴홀에서는 선교 찬양을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할렐루야찬양대 오케스트라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금번 음악회

는 99년도 여름에 시행하게 될 '여름 유렵 선교여행'을 위한 준비의 일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주간충현 오늘 500호 발간
국내 및 해외 43개국에
매주 1,200부 발송

주간충현이 지난 1989년 3월 4일 창간된 이래 500호 발간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4년으로 발간되다가 97년 6월부터는 6면으로,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8면으로 증면하는 비록치에 격주간으로 영어판(The Bwelying Chong Hyun)도 발간해오고 있다. 현재 주간충현은 교회의 5대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성도들간의 영적 교통을 증개고 복음전도지로서의 소임을 감당하려는 목적으로 꾸준히 내용을 개선했다 고 있다. 지금 주간충현은 8면에 국내 및 해외 43개국에 매주 약 1,200부씩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음전도지의 특성을 뚜렷이 갖추어가면서 국내외 더 많은 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주간충현 500호 발간을 기념하며
온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도구되길

주간충현이 오늘로서 50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1989년 3월 4일에 창간 이후 9년 9개월이 지났습니 다. 500호 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오신 은총의 여정(旅程)이었습니다. 주간충현이 창간되던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일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주간충현도 이 목표를 일조하는 동시에 특별히 성도들간의 교통의 역할과 복음전도지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창간초에 설립자 위원장들의 축하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당회서기였던 윤병성 장로님과 예배위원장이었던 김기정 장로님 등은 주간충현이 충현교회의 눈과 입과 귀가 되고, 성도들간에 매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위원장이었던 윤종성 장로님과 구제위원장이었던 오진국 장로님 등은 불신자를 향한 전도지로서 문서선교의 요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주간충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편집국장으로서 수고하시던 손경주 장로님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수고해 주셨습니다.

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따라서 복음전도지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이라는 5대 목표를 골뎌고 하려 주님의 뜻을 바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5년도경에 정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도하는 교회'라는 교회 목표가 꾸준히 수정 보완된 결과입니다. 이 모든 목표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땅한 표지(標識)로서 궁극적으로선 '선교 지향적인 특성'은 결코 간도하는 것이입니다.

따라서 500호를 맞는 주간충현도 이 방향에 맞추어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는 복음전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슬기 있고, 격려를 받으며, 전도지로 사용되는 주간충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 순 (간로, 편집국장)

물론 그때에는 전교회적으로 실시



김창인 목사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

(이사야 31:4-9)

“편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편만한 때에는 교만하여 자기를 믿고, 어려운 때에는 어리석게 다른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나 편안하든지 어렵든지 하나님만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면에서 구원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믿음도 약한데 주위 환경은 너무 험하고 거칠어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 위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앗수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점령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마지막 독수리가 병아리 한 마리를 낚아채듯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이런 상황을 본 남쪽 유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말할 수는 없으나 앗수르보다 더 강한 애굽과 동맹을 맺어 두면 되겠다. 애굽은 무력이 강하고 식량이 넉넉한 나라이니 그들과 미리 공수동맹을 맺어 놓으면 앗수르 군대가 쳐내려 오다가도 도망을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맞붙어 싸우게 되면 우리가 문제없이 이길 것이다” 유다의 위장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수동맹은 물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쓰인 많은 보배를 깨네다가 약대에 실어 사산과 함께 애굽에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나타나서 유다를 책망합니다.

1.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1) 사자보다 강한 능력으로 시온산에서 싸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켜주어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돌이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하게서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4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온산에 나타나서 원수와 더불어 싸우려 하다가 인간들이 떠드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일을 포기하고 도망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자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원수들의 떠드는 소리에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 이미 세보다 강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십니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5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한 힘과 사랑으로 보호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니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구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지혜로 구원하십니다

“...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신다”(5절)

“넘어와서”란 말씀은 마침내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의 지혜로 유성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앗수르 군대를 홀려 넘어와서 유다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유다를 구원할 것이니 원수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여 겁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유다가 애굽과 더불어 공수동맹을 맺으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 유다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1)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손들이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6절)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죄 용서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헌한 은상, 금수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7절)

유다가 더러운 우상을 던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 앗수르는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1) 앗수르는 여호와의 심판의 칼에 었들 것입니다

“앗수르는 칼에 었던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었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

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사 31:8)

심판의 칼을 보내겠으니 이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으면서 의심하며 걱정하였고 앗수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라서 교만하여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의심이 생기자 겁을 집어먹고 또 앗수르는 하나님이나 유다 민족을 구원할 실 계획을 몰라서 자기네 힘을 자랑하면서 호언장담합니다. 하나님은 떠들어 호언장담하던 앗수르 군대에게 칼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칼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칼은 엘그드 엘그드 찢고리를 내며 번쩍번쩍 빛도 발하지 않고 조용히 일하여 앗수르 군대 18만5천 명을 하룻밤에 처치하셨습니다.

(2) 앗수르의 왕과 방백들이 두려움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9절)

“그의 반석”은 앗수르 백성이 의지하는 왕을 뜻합니다. 앗수르 왕은 18만5천 명 군사가 일시에 전멸당할 때에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앗수르의 왕 산해립 일에서 호언장담하던 앗수르의 방백들은 예루살렘에 쫓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만을 보고 놀라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3) 앗수르는 여호와의 불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 여호와와 불은 시온에 었고”(9절)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였답니다.

“불”은 성령의 불이고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천군교회의 주위에 었은 온갖 거짓들이 유권거리지만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불으면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나는 천군교회에 성령의 불이 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의 건물은 크고 넓고 세력 있는 분이 많고 모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불고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떠들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4) 앗수르는 여호와의 불로 녹아 내릴 것입니다

“... 여호와와 불은 예루살렘에 었느니라”(9절)

“여호와와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시의 백성을 위하여 원수를 심판하시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부흥, 개인과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편만한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편만한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어려울 때에는 남을 믿습니다. 그러나 편만한 때에는 교만하여 자기를 믿고 어려울 때에는 어리석게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편안하든지 어렵든지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주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듯이 저주와 멸망은 죄값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죄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죄 위에 죄를 더하면 영혼도 육신도 망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는 이유는 거의가 죄값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부터 회개함으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면하고자 더욱 죄를 범하면 육신이 살 것 같으나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권능과 사랑과 지혜, 이 세 가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힘이 있으나 사람이 모자라고, 사랑은 있으나 지혜가 모자라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과 사랑과 지혜가 결합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로,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불리면 원수가 손대지 못하나 그렇지 못하면 마귀의 불이 붙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불리면 원수들이 손대지 못하고 신자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불리면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신자의 개인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마귀가 지옥 불을 불어 놓는데 여러분의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붙어 있지 않은 불이 불으면 안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고, 지옥 불과 같은 불이 없는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



김성목 목사

벨릭스 (사도행전 24:25-27)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느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고 베소스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의 고난

어려 해 동안 선교 여행을 한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물과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바울은 잃을 것이 없다고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들을 미혹하여 율법을 비난하고 헬라인 예배자를 끌어들여 성전을 더럽히는 등 위험한 도를 행했다고 하여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도시 전체를 어지러운 소요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바울은 군중들에 의해서 거리로 내쫓았으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졌으나, 감자라게도 로마 군대의 장관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폭도들의 손에서 그를 빼앗겼습니다.

천부장의 배려

바울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후에 로마군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고 체포한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천부장은 바로 다음날 그를 풀어 주고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당한 이유를 알기 위해 예루살렘 공회(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앞에 서게 했습니다. 공회가 시작되자마자 바울이 선언한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공회 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천부장은 이 와중에서 바울이 크게 다칠까 염려해서 군인들을 명해 바울을 다시 감옥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23:10).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천부장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에게 은밀히 보냈습니다. 바울을 다시 한번 구해 준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กา리아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소자들을 기다리며 가이사라 해롯궁에서 닳새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재판

마침내 아나니아(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대제사장)와 장로들, 그리고 변사 두들기가 왔습니다.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미 작은 도시에서만 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주목받은 인물인지, 그리고 그의 재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5절). 그는 천하를 어지럽게한 자라는 혹평을 받았 습니다(17:6).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이는 지회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마 10:18)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사 두들로는 낯간지러운 아첨으로 변론을 시작합니다(2, 3절). 그의 발언은 변론인답게 매우 짜임새 있는 간단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다들로는 유대인들의 내 변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모독하여 죽여 마땅한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로마로 호송한 리시아스 총독의 행위는 적권 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 따라 바울을 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바울의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비도덕적인 양심을 나무랐습니다. 벨릭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회개하거나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삶의 전환점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잠시 떠나 있게 했습니다. 벨릭스는 능력의 종 바울의 복음증거를 무시했습니다. 말살의 능력이 강하게 그의 양심을 움직이고 있는 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는 2년간 바울을 구류해 두는 동안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했지만 그것은 돈을 얻으려는 부패한 의도 때문이었습니다(26절). 그런 와중에서 벨릭스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후임자로

벨릭스입니까 바울입니까

벨릭스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데는 영리했는지 몰라도 영원한 것을 찾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삶을 쫓는 데에 영리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진실로 그는 영원한 믿음의 빛을 쫓는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영원한 삶을 향한 진정한 승리자였던 반면 벨릭스는 패배자였습니다. 바울이 몸이 묶인 중에도 진정한 자유인이었던 반면 벨릭스는 돈과 성공과 쾌락에 매인 노예였습니다. 벨릭스는 당시에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그를 완전한 패배자로 평가합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보다 완전한 비극으로 충만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입니까, 아니면 벨릭스입니까? 22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들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원한 삶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적인 동의의 후에 끝 잊어버리거나 다음날 다른 데로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벨릭스입니까? 만약 벨릭스의 길을 원하신다면 세상의 보화와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의도와 사회적 지위와 재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감사를 드십시오.

주님의 영에 매고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년 중에도 자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의 삶에 대해 보며 그의 위대함을 아무동성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벨릭스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게로 달려가시켰습니까? 주님께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우리가 모두가 진정한 오를과 같은 삶을 살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만약 벨릭스의 길을 원하신다면 세상의 보화와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의도와 사회적 지위와 재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감사를 드십시오

재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가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는 것은 어색하기 지 않습니다.

총독 벨릭스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기록을 보면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유대 총독이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더 잘살아 보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기적인 복권이 되는 것쯤은 이렇듯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는 것을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성공의 사다리를 타기 위해 남의 아내였던 유대계의 아름다운 여인, 곧 로마의 관세있는 자와 친분이 있던 드루실라를 납치해 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또한 부패한 관리로서 복음을 좋아했습니다(26절).

벨릭스의 기회 상실

첫번째 변론이 있을 후에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기독교에 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24:22). 그는 바울을 직접 만나 복음을 듣는 줄도 없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베소드가 부임했습니다. 베소드 역시 복음의 진리를 듣기는 했으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계속 구류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역시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의 회개기 없음 불행

다시 벨릭스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신령한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들을 즐겨했지만 속으로는 돈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정말로 듣기 좋고 참된 진리라고 하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토론했던 복음 그 자체를 손수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복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해 버린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 하지 뭐!’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에게 결코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선교

'미안마 선교정보'

*미얀마의 집없는 교회

핍박 중 신앙 지키는 우리의 지체들

아름답기로 소문난 세계적인 관광지, 높은 산과 절무른 정경, 그리고 고대의 유적지들이 풍부한 큰 태국을 멀리에서 그리롭니다. 그 아름다운 관광지들과 그곳을 즐기는 사람들과에서 조금만 벗어나 태국과 미얀마의 접경지역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십만의 무고한 남녀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시촌락을 이루어 군인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다수가 크리스천으로서 미얀마에서 쫓겨나온 카렌족입니다. 이들은 미얀마의 관

역으로 강제이주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현재 절박하고 열악한 음식(공산정부는 이들에게 소량의 쌀을 배급하고 모래를 섞기도 한다)과 전해짐)으로 인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은 태국 국경에 위치한 카렌족 난민촌에 새벽 1시경 무장한 미얀마 군인들이 들어다쳐 서른세살의 임신자와 일곱살 난 꼬마소년, 그리고 열다섯살의 소녀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시켰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면서 이들이 미얀마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더 가혹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으로 부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태국 국경의 그 아름다운 정글 안에는 핍박을 피해 떠돌아다니는 우리의 형제지체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한 군사정권이 내세운 '종족청소 정책'의 희생양들이 됩니다.

미얀마는 수십년 간의 군사정권 이후, 1990년에 민주적인 선거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때, 총 투표자의 80% 이상이 지지한 국가민주연방당이 집권당이 되는 패자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군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은 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법적인 쿠데타 정부를 세워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군사정권은 미얀마의 불교세력과 연합하여 수백만의 소수종족들을 잔혹하게 탄압하여 이들을 태국 국경지대로 몰아냈습니다.

특히 이 군사정권은 카렌부족민들을 강제노동과 광산 청소 등에 동원하면서 명령에 불복하거나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형해왔습니다. 또한 일단의 카렌부족민들은 강제노동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다른 지

입은 사람은 60여명에 달했고, 이 중 30명은 중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현재 약 만 이천명 이상의 카렌부족민들이 난민촌을 떠나 정글 등지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는 태국 국경의 그 아름다운 정글 안에는 바로 이 떠돌아다니는 우리의 형제지체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들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입니다. 99년초, 우리 교의 선교위원회는 미얀마 선교 정탐을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준비와 안전과 정탐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권범표)

*미얀마는 '버마'의 새 국가이름입니다.

선교사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성탄절과 새해를 선교지에서 맞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랑과 격려가 가득 담긴 편지 및 카드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가두 및 각 부서, 개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선교사명 : 이준교 선교사(이집트), 안석열 선교사(수리남), 김명대 선교사(수단) 외
평신도선교후원회 6인(주간평균 8명 참조)
접수기간 : 1998년 12월 1일(화) - 12월 6일(주일)
주중에도 접수합니다.

접수장소 :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접수물품 : 식품품, 의류, 도서류, 학용품 등
*임계 파손되거나 상하는 음식은 전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연구원 1박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

장차 선교사로 하나님께 소위받기를 소원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를 내어 훈련을 받던 선교연구원생(평신도선교후원회)들이 지난 20일(금) 강도를 충현기독교교회로 옮겨 1박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소위받기를 소원을 전하여 할 선교사들이 오히려 말씀에 고감되어 함께하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가 선교사로 적격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선교연구원생들은 높은 밤까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배워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나와의 관계'를 역동적인가?라는 질문을 각자 가슴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전국교단

-소년부 연구수업-

처음 부름받은 그때 그 각으로

한 연 속(소년부 전라4만 교사)

이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가르치셨다



11월 22일 연구수업 담당으로 우리 미나 선전되어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공개수업을 했다. 아직도 실수와 허점 많은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공과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 훌륭한 교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물론 준비 없이 서도 된다 는 말이 아니다. 철저한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한 전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나의 자제인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을 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이라든가 사람이 없으면 그 소리는 울리는 땅과리와 같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식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아이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다고 전한다든가 그것은 정말 허공만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린도교회에게 전하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말씀을 전할 한 열매를 바라보게 하였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나에게는 아이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연구수업은 처음의 떨리는 긴장과는 달리 아이들의 반색이든 눈을 보면서 편안함으로 끝나고 수 있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이들이 나를 안 소롭게 바라보면서 "선생님, 멀리 마세요" 하며 안심을 시켜주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나보다 더 어른스럽게만 하다. "예들이! 실수투성이인 선생님을 만나서 너희들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지 각성이 하시는구나. 하지만 난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는 너희를 책임지고도 보호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란다."

연구수업을 마치며 내년 1년을 다시 설계해보자. 늘 처음의 내면과 같이 귀한 직분에 부름받은 섬기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섬길자의 쫓기신 몸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꼭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정 경 진(유년부 1-18만 교사)

"올 해는 어떤 아이들을 맡겨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었는데 같은데 어느새 그 아이들이 새 학년으로 올라 보낼 시기가 다가온다.

조금은 아슬한 표정으로, 찬송가도 일일이 찾아 주어야만 했던 아이들... 언젠가 다리게 올때의 몇몇 아이들은 처음부터 나의 기도제목이 되었다. 앞, 뒷만 모두에게 눈총을 받을 정도로 울적이었던 우연이. 몸이 약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는 힘이 들어 예배도

아이들을 같은 상태로 두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잘 못드려진 미나. 서툰 글씨를 열심히 쓰지만 선생님과 보조를 맞출 수 없아 울어버린 철쭉. 왜 때마다 장난감이나 용유를 담당하게 가지고와 내놓는 정연이. 선생님의 말씀에 다소곳이 웅화던 예전의 아이들과 다른 모습의 아이들을 대하게 된 나는 마음을 속상해 하며, 교사의 자질을 의심하며, 기도하는 날들이 11개월이나 지나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똑같은 상태로 두지서는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우연이 보다 훨씬 쾌활하고 건강해진다. 이제

님들의 기도의 수고도 배짱을 수 있다.

이제 아이들을 2학년으로 보내기 전 간담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신 교사, 성령 충만한 교사, 어떤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사를 만나게 되기를. 나 또한 그러한 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하여 아이들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노력하지 않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뿌리내리고 열매맺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부부 편지 : 한몸 안에서 대화하기

당신이 준 믿음의 도전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구려

사랑하는 아내에게

옛그해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것을 보니 겨울의 문턱을 훌쩍 뛰어넘어 벌써 겨울의 한가운데와 있는 느낌이 오지요. '성공한 사업가'였던 나는 고백 풀린 땅이지러진 세상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인 것 같소.

당신을 만나 가정용 이혼 지기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구려. 우리 아이들이 벌써 대학교와 고등학생으로 성장했으니 결코 짧지만은 않았던 세월이었던 것 같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성공한 사업가'였던 나는 고백 풀린 땅이지러진 세상 것들을 열심히 좇으며 살아왔었소. 그런 나에게 있어 당신과의 만남은 분명 큰 축복이었소. 특히 결혼 전에 필히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던 장인 어른의 당부로 나의 자존심 따위로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특별한 신의 섭리라 믿고 감사하고 있소.

남은 날들 동안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되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좇는 대신에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오

세상일에 흠뻑 취해 있었을 때 나를 책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눈물의 기도로 성원하던 당신, 모가 많이 난 내가 내는 어떠한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 기울여 주던 진실한 당신,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소리없이 해내는 당신, 당신의 그러한 모습들에서 나는 믿음의 큰 도전을 받아왔었음을 고백하오. 그동안 당신의 결로숨은 많이 변했지만 2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주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의 확신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소. 바라기는 남은 날들 동안도 우리 서로가 더욱 더 믿음으로 하나되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좇는 대신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우리 아내들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후신 : 겨울바람에 휘날리는 적지 않은 당신의 흰 바리까라 꽤나 보기가 좋구려.

남편 김동욱(집사, 12교구, 고등부 교사)

감사드려요,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장 되심을

김 집사님께

김 집사님(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여보, 당신이란 호칭이 어색하여 어떻게 부를까 한참 망설임다가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다) 오솔 새벽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고요. 지난 날 [시]가 넓게 펼쳐져 돌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며 존경과 부러움을 갖습니다. 우직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집사님.

금한 성직으로 분을 내기 헬기를 부리고선 하루종일 그런 자신의 모습에 추위하며 애똥똥하며 회개하는 집사님, 그동부의 처장일과 배드로전도회장 직분을 맡고 있는 너무나도 자신이 부족하다면서 기도하며 매일 교회방을 회하여 가지고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일하시는 집사님, 항상 장이 부족하여 주일을 위해 토요일 모후신간 만물을 갈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길 기대하시는 집사님, 생활의 충절을 교회와 하나님께 맞추려고 애쓰시는 집사님, 회사가 어려울 때 모든 것 줄 수 있는데마땅히며 낙담할 하지 않고 기도하던 집사님, 부족한 저는 집사님의 기도의 수고 덕분으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신 사랑을 통해 받고 살아 갑니다.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을 생애에 도전을 받으며 저도 말씀에 무관심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내 이애나(집사, 12교구)

▶ 김동욱 집사, 아내 나 집사 부부는 1978년에 결혼하여 현재 슬하에 1남(대학), 1녀(고등)를 두고 있다.

‘직장에서 복음전하기’

우리 5학년 4반 속에서
함께 달리신 하나님

"애들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하나님의 발은 얼마나 길까?"
"우리 학교요! 우리 아파트요..."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어떤 한 쪽 발은 태평양에, 다른 쪽 발은 대서양에 딛고 계시지 않을까?"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지구를 들고 구슬치기를 하실 만큼 크실 것 같네요."
"어머머! 그래, 지구가 말이 제일 맞았다."
그일 후로 우리반은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들고 구슬치기를 하실 만큼 크신 분으로 정경하게 되었다. 얼마나 예쁘고 마음에 쏙드는 표현인지 나는 혼자서 그렇게 종종 수가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 오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급근 봄에 인천에 있는 이 학교로 부임하고부터 우리반 아이들이 도시 애들답지 않게 순박하고 정이 갔다. 새로 부임한 낯선 학교인데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하는지, 참으로 속의 단비가 날마다 강물처럼 나를 씻어 주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격 속에 틈나서 그런 정경을 붙들게 하셨다. 아침 자습시간은 물론이고, 점심시간, 식사를 하면서도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런 내 모습이 아이들 눈에 또 다르게 비쳤는지 별만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묻곤 하였다. 자연스럽게 기도도, 찬양도, 성경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애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누구 말해볼 사람 없을까? 그럼, 선생님이 한번 말해볼게. 선생님이 성경을 보니,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더라. 너무나도 감사하고 싶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뭘 좀 드리고 싶었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뭘 좀 드리고 싶은데, 황소를 드릴까요? 염소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황소도 필요 없고 염소도 필요 없으니, 너의 정직하고 공평한 그 마음을 주렴.' 그러시더라. 어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멋지지? 우리 날같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텐데, 우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는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공평하게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야겠지?"
"선생님, 그 얘기 정말 성경에 나와요?"

"애들아, 우리 교실이 바로 작은 교회야."
"그럼, 우린 날마다 교회에 다니네요!"

토요일은 '교회가기'를 숙제로
학부모 항의 열려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기고
기도 응답으로 얻은 달리기 2등의 기쁨



나 성에(집사, 2교구)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모든 것을 성경에 적게 하신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어갔으며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기'가 숙제로 주어진게 되었다. '혹시 어떤 학부모가 항의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도 있던 했지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당당함으로 이렇게 뜻을 막았다.
엿그제, 선생님은 반 대항 이어달리기 시험이 있었다. 5학년 13개 반의 모든 어린이가 계주 선수가 되어 이어달리기 시험이었다. 1학기 때에도 이런 비슷한 시험이 있었지만 첫고 지난 번 줄다리기 시험때도 형편 없이 컸기 때문에 애들도, 나도 시험을 해 보기에 자신이 없었다.

"선생님, 우리 반이 몇 등 할 것 같아요?"
"음 2등?" "정말요?" "그럼! 2등?"
"선생님, 정말 우리 모두 2등요?"
"하나님, 다시 저희들이 시험을 하게 한것 감사드리며 저희 반 40명 모든 어린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은 아이들답게 두려워 말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2등은 많이 든다는 등 불안하다는 등 우리들끼리 다시 기도하겠다는 등 말도 많더니 드디어 이어달리기 시험이 시작되었다. 언제 우리가 불안했었다는 듯이 모든 어린이가 하나같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게 아닌가! 드디어 마지막 주자 지성이기 최선을 다하니 간 발의 차이로 2등이 되었다. 열썬하고 뛰는 아이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아이들까지, 너무나도 기뻐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게 분명하다.

요즘 봄글 삭감이다, 전년 단축이니 하여 교육계에 슬렁이 있고 있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하진지 모르. 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이 아이들을 맡겨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 행복하고, 그 말씀들이 오히려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어서 행복하다.

"감사하, 우리 교실이 바로 작은 교회야."

"그럼, 우린 날마다 교회에 다니네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양 기 수(필사, 5교구)

나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 에녹을 참 좋아한다.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창 5:21-24) 에녹에 관한 기록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결혼 문제가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며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군대를 갔다 오기 전에는 여자를 사귀지 않았다

부모인 나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 마음을 청하고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맞을까 많이 생각했다. 그때가 열일곱살때였다. "주님, 나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자'를 내 삶의 원칙으로 정했다. 그리고 나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자신을 사랑하고, 셋째,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셔서 내 기도에도 맞는 아내를 주셨고 아들 둘, 딸 하나의 3남매를 선물로 주셨다. 큰 아이가 어릴 적 BCC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1년 이상 약을 먹으며 지낼 때와 둘째 아이가 뇌막염으로 아파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땀을 흘릴 때는 꼭 죽을 것만 같았지만 부모인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후에도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나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또 장래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는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나는 모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집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3남매가 말행부리지 아니하고 잘 자라 주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선물인 반석, 시온, 하산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여라."

"먼 훗날 나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내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게 주셨습니까."라는 고백을 한다면 나는 부모로서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내게 꿈을 주

셨던 주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신화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린다.



'축하드립니다' 500호를 맞는 주간충현 교회 법세가 나는 신문으로

김 은 숙(대전중앙교회 신문 담당)

오늘 대전중앙교회 '사랑의 빛' 신문을 담당하게 되면서 여러 교회 신문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모델을 찾으며 기준을 정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의 '교회' 법세가 물론 풍겨야 된다는 것, 둘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셋째, 색인 신문으로서 각 면마다의 주제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 넷째, 젊은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 다섯째, 신학과 신앙과 편집기술이 잘 어우러지는 전문가의 솜씨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간충현은 이런 우리의 구미(구미)에 거의 들어맞는 신문이어서 신문을 만들 때마다 반드시 참조하면서 조언을 얻게 되었다. 세상에서도 신문은 매일 없이 만들어지고, 의식있고 축복(?)받은 교회들도 주간이든 월간이든 신문 형태의 간행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때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신문이 만들어지면 쓰레기 취급 받기 쉽다. 그러나 '기독관'이라는 중심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주간충현을 접할 때마다 우리 교회 신도도 예수 법세 물론 풍기고 예수로 인해 변화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교회' 법세 물론 풍기는 신문을 만들어야겠다는 자극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충현교회의 주간충현 500호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모델교회로서 또한 여러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주간충현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꽃 불

이 정 신
(55교구)

당신이 세상에 보낸 생명이기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부딪혀 오는 바람이 너무 작아

자그만 위안이 있다면
당신을 향해 끊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베풀어 준 생명의 촛대 하나
스스로 녹아 생명을 보이며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너무 작아

호모하는 마음만 불타
오르는 눈물을 굳어

당신의 사랑을 빌릴 수 있는
한 개의 더듬대로 쓰이고 싶어라

대순진리회를 조심하십시오! 이제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대kehr 한 지혜)

80년 교회 생활을 잠시 흔들려 놓은
이단자설 '기(氣)에 관심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늘 말씀을 읽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등
변화된 날들을 보내고 있다.

나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전도나 봉사, 그밖의 활동은 나와 무관한 대 세상의 예기로 치부했었다. 그러나 올해, 주님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자도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 있었다.

5월의 어느 주일이었다. 그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친구를 만나려고 강남역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다. "기(氣)에 관심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가운을 책임지기 위해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운회(輪廻)를 수백번을 하여 사람답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전생에 업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도를 배워서 풀어야 한다. 오늘날은 말세이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144,000명은 마지막에 도를 닦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도인들이다'가 그가 한 말의 요지였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도 찾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그때 '말세에 나를 유혹하는 자들이 나오므로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의 무릎을 깨우쳐 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대순진리회에 속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시간 나는 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 특히 여름 방학 중에는 한 달반에 성경을 일독하게 되었다. 성경을 일독 했다는 기쁨과 함께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8월부터는 새벽기도에도 동참하게 되었다. "주님께 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뜻대로 써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솔직히 옛날 같았으면 그러기 힘들 때 이런 말은 형식적으로 했을 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도가 나의 마음 속에서 나왔다. 그 자체가 놀라웠고 감사했다.

지금은 군 입대 문제로 휴학을 했는데 주님 앞에서 좀더 보람찬 생활을 하기 위해 충현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로 장애인들을 돕고 있다. 또한 마태복을 28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나를 삼켰다는 의욕을 가지고 선교위원회에서도 봉사하게 되었다.

이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의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려 힘쓰고 있다.

말방 / 중년남성중창단

영감 넘치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더욱 아름다운 화음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무관주의 아가페라곡 등으로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지향하는 중년남성중창단(대장 차신득 장로, 지도 김윤경 집사)은 단원들 모두가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되어 힘있게 찬양하여 은혜를 뿐만 아니라 남성중창의 매력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중창단이다.

이 중창단은 95년 경향 전도를 위한 특송을 계기로 하여 96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를 대표할 중창단으로 활동해 왔다. 단원들은 중등부때부터 서로를 잘 알던 사이로 그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찬양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비수출 도래를 두고서 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또 각각 임마누엘, 실로암, 가브리엘 찬양대에서도 찬양 활동을 하고 있다.

찬양 연습은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할렐루야홀에서, 주일은 오후 3시부터 찬양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홀에서 한다. 그리고 특별히 더 준비해야 할 찬양이 있으면 주 2회 정도 더 모인다. 서로가 바쁘지만 거의 모두가 나와 찬양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데 때로는 연습할 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중년남성중창단은 찬양예배의 찬양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리고 금요집회의 찬양은 석 달에 한번씩 거의 정기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연 2회에 걸쳐 정기 연주회를 갖고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특별 찬양도 하고 있다.

96년 7월에는 테이프와 CD로 제 1집 앨범을 발표했는데 성도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빠른 시일내에 2집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 찬양예배때 찬양한 곡들을 모아 녹음한 테이프도 있다. 남성중창단은 앞으로

찬양 선교를 통한 순회 공연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다.

지도 김윤경 집사님은 남성중창단에서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 성도가 있으면 일단 찬양위원회에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한다. 차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단원의 교체 있을 때 오디션을 거쳐 함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단원들의 진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정되고 서로의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특히 은혜 넘치는 찬양을 위해서는 기도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뜻이 있는 분들이 기도 후회회와 같은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대장 차신득 장로님이나 김윤경 집사님께 연락하면 된다.

처음에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갈수록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야 하는 의무적인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하여 좀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때부터 서로를 잘 알아왔고 나기도 하고 있어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이들이 잘 협력하여 더욱 더 아름다운 화음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더욱 요청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봉사자 선택지침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11)

히브리서 문장에서 '봉사'는 항상 '경배'와 동일한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봉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가 놓여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엔 봉사할 부서 생각으로 마음이 산란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봉사로 지친 나머지 '내년에는 편코지 쉬어가고' 그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때 마음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1.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 - 교회 어느 부서에 일꾼들이 더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힘겹고 어려워서, 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찬양대로 물리고 있다'는 괴소문(?)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교회학교나 차광부 등 정작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서들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 내 기쁨을 버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 스스로는 자기 확신에 차서 봉사자를 선택했는데, 결코 그 부서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성도가 만일 어느 부서에 갔더라면 훨씬 더 힘있게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역자나 정직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꼭 물어봅시다. '나한테 맞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3.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준비하기 -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봉사는 실패합니다.

'나의 종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더더욱 힘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 뜻으로 하라' (벧전 5:2)

지체들 소식

영아부

현신하시는 선생님들로 인하여...

사랑과 인내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영아부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늘 그 자리에서 이롭힘이 빛 없이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우리 선생님, 아기들의 성격을 자세히 알아 순간순간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우리 선생님,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까지 늘 도와주시며 아기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세상에 나라는 교회에 간절히 꼭 필요한 일꾼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에 예배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마음가져 영아부 예배실에 열드려 기도하고 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성경이야기대회

유아부는 오늘 성경이야기대회를 갖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예선에 참가했던 어린이들 중 뛰어난 어린이들이 결선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이야기, 사개요의 이야기, 바티모오의 이야기 등 9가지의 예수님 이야기들

연령에 맞게 선택,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소년소관 속삭이는 목소리, 우물쭈물 목소리, 수줍어서 어쩔줄 모르는 목소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모습은 다 달라요 연습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고 어린이들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고 이번엔 또 참가한 어린이들도 내년엔 꼭 참가하세요. (임미은 통신원)

유년부

주님의 사신사

유년부에선 주님만 아시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예배게 찍어 주시는 교양한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분이시답니다. 92년 중등2부 결선 때마다 사진을 찍을 사람이 없어 애태우는 모습을 보시고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7년째 사진을 찍고 계시고, 매년 11월에 찍는 료 사진. 담임 선생님들과 장로님, 전도사님과 함께 봉당 앞에서 찍는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겁니다. 항상 많았이 유년부의 약속을 위해 봉사하시는 교양한 선생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

리 예수님의 사신기에 적히겠소. (정지훈 통신원)

중등2부

하나님, 저희들도 기쁘네요

중등2부 친구들을 만난 지가 었게 같은데 어느새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만 나게 된 친구들! 그래서 그런지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애송이 있었고 그 때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젠 이런 모든 추억들을 영원 전편으로 모두 모두 보내고 지난 열한 달을 생애할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뜻깊은 시점에 저희 중등2부 친구들 가운데 35여명의 친구들이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입고, 학습, 순례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식 제자로 많은 성도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수줍은 듯 손을 흔들며 뒤돌아서는 친구들의 모습 속에는 마냥 좋으셔서 활짝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환한 웃음이 훈훈하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기쁘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쁘게 충성할게요! (나성애 통신원)

중등3부

오늘 학부모초정기기도회

오늘 12시 20분부터 교육관 503호에서 학부모 초정 기도회를 갖습니다. 21세기 의 주인공이 될 우리 자녀들의 학과, 가정, 교육에 관하여 특강 및 토론, 기도회를 갖고자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15교구

삭개요와 같은 유래에게 찾아 오실 주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기를 소원했던 삭개요는 예수님께서 친히 집에 유하시고 만나주셔서 구원을 얻은 삶으로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회심과 결단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 중에 어떤 이유에서건간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배버려 두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다! 그러나 말씀은 전하지는 목사님의 메시지에 그동안 치저서 또는 무관심과 냉담함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었던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와 장기 환자들과 병행 생활에 하나님께의 구원확실과 역사하심을 믿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숙정 통신원)

교 회 소 식

● 알 린

1. 구제헌교 / 오늘 I, II, III, IV, V 부에서 드립니다.
2. 중동3부 학부초청기도회 / 오늘 12:20-13:50 교육관 503호에서 있습니다.
3. 주일오후기도회 오늘 장소 안내 / 권사의 총회가 있는 관계로 오늘날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기도회 시간: 15:00-16:30).

● 모 임

1. 장로 회오새벽기도회 / 12월 1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필요새벽기도회 및 성경공부 / 30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제정위원회, 기획위원회 모임 / 99년도 예산 심의, 12월 3일(목) 18:00, 선교관 301호
4. 건축위원회의 모임 / 오늘 15:00, 사무국
5. 설립인전도회 목요일기도회 / 12월 3일(목) 새벽기도 후, 설립인전도회실
6. 설립인전도회 총회 속회 / 12월 8일(월) 18:30, 칼빈홀
7. 교회총회위원회의 회의 / 오늘 15:00, 사무국
8. 권사의 총회 / 오늘 15:00, 칼빈홀

● 남녀전도회

1. 바 울 6 총회 / 오늘 구교모임 후, 복자관 지하1층
2. 베드로14 총회 / 오늘 구교모임 후, 남산(문: 678-9968)
3. 오 한 4 총회 / 오늘 18:00, 예수의 전당 앞
4. 오 한14 총회 / 오늘 19:00, 정운성 집사처(한산동 주공A, 1205-908, ☎ 688-0595)

● 결 혼

1. 김영목교(백옥심 집사의 아들, 제12교구)과 박현영양(박건정 안수집사, 신촌회 집사의 딸) / 12월 1일(화) 13:00 칼빈리틀

● 12월 주일 및 수요일예 기도 달

월	일	주일 예배 (점포)					찬양 예배 (안무실)	수도 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12	6	정운석	강은원	최태원	노광원	김종구	정태부	박옥심	사인희
	13	김재명	강모을	최무진	박승준	김영길	강창원	권영애	윤명애
	20	오정현	윤성철	송기홍	이창호	차진숙	최정남	김정성	우순성
	27	조진태	강은용	최대선	김박진	안종용	황원철	양선자	최화자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786	박연주	1	청년1부	최진주(1)	1801	변석관	17	루다아	윤명복(13)	1816	오종만	19	청년1부	심혜숙(2)	
1787	이호수	1	청년2부	정미영(2)	1802	하은진	19	고동부		1817	정준영	14	대학부	정승아(19)	
1788	신정민	2	초동3부	최선명(2)	1803	허윤강	19	고동부		1818	이선영	19	대학부		
1789	박은경	3	청년2부	1804	임정옥	1	청년1부	원길자(11)	1819	장한나	19	청년1부			
1790	장우주	3	청년2부	1805	김영선	19	청년1부	강석란(14)	1820	조종진	13	베드로	장태수(13)		
1791	최 광	3	청년1부	1806	박석준	19	청년1부	윤희선(17)	1821	이병진	19	고동부	최원희(4)		
1792	정영달	9	바울	1807	김태호	19	청년1부		1822	강우주	19	고동부			
1793	박기화	10	베드로	송승선(10)	1808	최은영	19	청년1부	강승우(17)	1823	서유미	19	청년1부	최원희(4)	
1794	조진구	10	조명희(10)	1809	윤은아	19	청년1부	신수홍(10)	1824	임정민	19	청년1부	박경희(19)		
1795	하미자	13	청년2부	이희희(13)	1810	이승은	19	청년1부	권홍성(7)	1825	최유람	19	청년1부	백인선(19)	
1796	박영규	14	청년2부	박옥희(8)	1811	홍은진	19	청년1부	정미영(2)	1826	김미향	19	청년1부		
1797	인영진	16	청년2부	박옥희(8)	1812	박승환	19	청년1부	박옥희(8)	1827	조혜영	19	청년1부	이용태(2)	
1798	정소진	16	예수리	황상선(15)	1813	김기현	19	청년2부	박옥희(8)	1828	홍은	19	고동부		
1799	박순정	17	청년2부	박지훈(13)	1814	김기현	19	청년2부	박옥희(8)	1829	권요립	19	청년1부	강정미(6)	
1800	김은숙	17	주디아	윤명숙(13)	1815	김수진	19	대학부	양윤선(19)						

※천국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 안내위원 모집

1999년도 헌금 및 안내위원으로 성심결 분들을 기다립니다. 자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위원장 오정현 장로님이나 지도 박경한 목사님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배위원회 -

12월 6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오르간 김윤경
(임아누엘찬양대 반주자)
(찬양곡목)

- 저 죽어가는 자
- 주기도문
- 죄짐 많은 우리 주주
- 날이 저물어

- 3부예배
오르간 조희영
(함평교회찬양대 반주자)
(찬양곡목)

- 차인전주곡
- 로렐 콜로네이즈
- 우리 주께 나신 만복성
- 기뻐하리라
- 천사들의 노래가

- 4부예배
오르간 최현실
(아편찬양대 반주자)
(찬양곡목)

- 주님이 함께하시니
- 나의 갈 길 다가도록
- 세상의 빛이 되고
- 내 기도하는 이 시간

- 5부예배
소프리로 이미리
(별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찬 아를다이라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주님 상하

총현 중보의 창

① 김강진 원로목사와 김성원 위임목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관능과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99년도를 위한 인사 개편을 통해 총현교 회 5대 목표가 더욱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새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소서.

③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겨울단기 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께 맡겨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열매 맺게 하소서.

④ 온 교회와 각 성도들이 연말 연시 바쁜 일 정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아름다운 장단과 자아를 이루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하게 하소서.

⑥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입고 고분수처럼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순종하게 하시며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시어 치료하여 주소서.

⑦ 주간송헌이 500호를 맞아 복음전도사로써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 하소서.

⑧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의 일꾼들이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 필요를 먼저 생각하여서 내년도 봉사부서를 잘 선택하게 인도하소서.

⑨ 추운날씨로 인해 더욱 고통당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소서.

- 원로목사
김강진
- 위임목사
김성원
- 부목사
이호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성준 정현준 김재철 이순수 정갑신 정병민 조문환 권순조 김동호 차병준 정병태 김진식 최현상 서광진 이송학 정혜성 박노철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민
- 선교사
이종교 안석원 김태영
- 원로전도사
이종교
- 원로전도사
최순복 정현희 현정남 장영자 임대주 김동자 배옥인 최희재 손희희 유함자 김창조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환 한영준 박종화 김영숙 김복순 최영만 김연식
- 교정전도사
박영택
- 교육전도사
박기진 염현일 한승일 김영기 송원식 김창종 조재민 허용구 이주환 김병수
- 선교전도사
장윤희 박태량
- 원로전도사
유병석 김형성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하효집

물음들

하늘과 바다에 드리워진
우리 주님의 손길

임 동 개(집사, 1교구)

동로 집사님들과 낙산을 찾았었다. 한 목적 아래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각 가정의 기도 제물을 놓고 기도하고 간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손길을 보며 마음의 부끄러움과 도전과 감사와 은혜의 눈물로 귀한 시간들을 보냈다.

깊은 밤 오징어 잡이 배의 불빛 아래 홀날리는 바 람속에 뿌러지는 눈가투와 불빛을 받으며 반짝이는 물결은 심령을 열어 화음의 찬양의 입술들을 열게 했다. 일출을 기다리듯 수평선 위 구름속에 감추워 빛날 듯 보일 듯 주위를 물결에 비추이는 햇살을 모두 놓칠

세라 바라보는 순간, 창조의 장엄함을 만끽하며 모두들 함성을 터뜨렸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살아 역동하는 동해의 물결이 넘실 거리는 해변을 거닐며 주님을 묵상했다. 궁창을 받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 저면 이렇게 광활한 바다를 만드신고 우 리에게 맡기셨을까? 산 위의 큰 바위와 바다의 모든 것들과 인간을 사랑하사 창조물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생육케 하신 하나님, 게다가 영원을 바라보는 눈까지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은총에 감사할 뿐이다.

